



SEE, LISTEN, EAT

건물 하나가 통째로 먹을거리로 구성된 경우는 많아도 먹을거리, 들을거리, 볼거리로 다양하게 짜인 건 흔치 않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유기농 재료와 세계 최초의 삼림욕 카페로 유명한 방배동 '카페 드 유중'이 위층에 아트홀과 갤러리를 더해 복합문화공간 '유중아트센터'로 확장했다. 작은 규모가 아니다. 100석 규모 공연장에 연습실이 9개나 있고, 갤러리에는 작가들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도 있다. 종일 세개 층을 오가며 어떻게 놀든 상관없다. 어떤 코스든 간에 크게 만족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02-536-1101 www.ujungartcenter.co.kr